베트남에서 또다시 대형 유전 발견

석유공사-SK, 수익금 1일 80만달러 이상 ... 비중 38-55의 초경질유

한국석유개발공사(KNOC)와 SK 등 국내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의 원유·가스개발 컨소시엄이 또다시 대형 유전을 발견했다.

컨소시엄인 CLJOC(The Cuu Long Joint Operating Company)는 11월24일 베트남 남부 바리아-붕타우 동쪽 해상 145km에 위치한 15-1광구의 <백사자(Su Tu Trang)> 구조에서 대규모 원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CLJOC는 백사자 구조 내 3곳을 시험 시추해 본 결과, 해저 4428m 지점에서 대규모 원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시추 과정에서 1일 평균 8682배럴의 원유와 1400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백사자 구조는 15-1광구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수심은 50m로 알려졌다. 특히, 발견된 원유의 비중(API)은 38-55로 휘발성이 많은 초경질유이다.

CLJOC의 한 관계자는 “아직 평가작업이 시작되지 않아 정확한 매장량은 알 수 없지만 백사자 구조에 매장된 원유량은 10월 말 상업생산을 시작한 <흑사자(Su Tu Den)> 구조와 비슷한 양이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흑사자 구조에서는 비중 36인 초경질류를 1일 평균 6만배럴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발견된 흑사자 구조에 대한 평가작업은 200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이며, 평가작업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상업생산은 지금부터 4-5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KNOC와 SK는 11월1일부터 흑사자 광구에서 상업성이 높은 원유 생산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른 한국 측의 1일 평균 수익금은 80만달러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LJOC의 지분은 미국의 석유 메이저업 Conoco-Phillips가 23.25%, 베트남 국영석유회사(페트로베트남)가 50%, KNOC 14.25%, SK 9%, 프랑스의 Geopetro 3%이다.

KNOC는 또 2005년부터 15-1광구 외에도 바리아-붕타우 해상 280km에 위치한 11-2광구에서 예상 매장량이 1800만톤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상업생산해 베트남에 현지 판매할 예정이다.

<Chemical Journal 2003/11/25>